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에 대한 연구

송 욱

김 윤 주[†]

한 성 열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인 기독교인 711명을 대상으로 종교성향에 따른 수치심, 죄책감을 비롯한 자의식적 정서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종교성향, 수치심 및 죄책감의 관계를 살펴본 뒤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과 자의식적 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종교성향을 네 집단으로 나누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롯한 자의식적 정서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연령은 내재적 종교성향 및 외재적 종교성향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회출석년수는 내재적 종교성향 및 수치심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내재적 종교성향은 죄책감과 정적 상관, 수치심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셋째, 종교성향집단에 따른 자의식적 정서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친종교성향집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비종교적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죄책감의 경우 내재적 종교성향 집단이 외재적 종교성향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수치감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재적 종교성향은 성숙된 종교감정인 죄책감과 외재적 종교성향은 미성숙하고 병리적인 종교감정인 수치심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종교성향, 수치심, 죄책감, 자의식적 정서, TOSCA

[†] 교신저자 : 김윤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E-mail : lovejina@hycu.ac.kr

종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James(1902)는 종교를 “개인이 고독 속에서 신으로 여기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느낌과 행위와 체험”이라고 정의내렸다. 이런 입장에 따라 종교심리학에서는 종교의 기능을 자아중심적 욕구(egocentric needs), 성장 욕구(growth needs),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 그리고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와 같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내재적인 종교적 성향과 외재적인 종교적 성향은 종교심리학 분야에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를 이끌어냈다. Allport와 Ross(1967)는 초기 연구에서 강조한 외재적 종교성향의 특성은 종교의 자아중심적 기능과 관계된 것으로 종교를 자기 관심에 대한 합리화와 개인의 욕구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 종교적 교의가 그의 일상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내재적인 종교성향은 원리적으로 가치중심적인 태도 또는 성장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내재적 성향의 믿음은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의 외재적인 종교성향의 요소들을 극복하여 광범위한 종교적 관점으로 인류애의 근원을 형성한다(Hood, 1972).

한편 인간의 주요 정서 중 하나인 수치심(shame)에 관한 연구는 개념적 정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에서는 수치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비롯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 및 관련 정서, 정신병리와의 상관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Tangney, 1995b).

수치심은 크게 ‘감정으로서의 건강한 수치심’과 ‘정체성으로서의 해로운 수치심’으로 나

뉜다. 수치심이 개인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수치정체성(shame identity)이라고 하는데 수치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의 자아상은, 자신의 참자기를 거짓자기와 분리시키는 이중구조를 갖게 되며, 그로 인해 자기의 파편화가 일어나 성격장애, 정서장애, 신경증 그리고 중독 증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노상현, 2004). 또한 수치심은 체면정서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생명력이나 살아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진솔함, 정직함, 자유로움, 순발력, 즉흥성, 모험심 등이 결여된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대개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정서로 다루어져 왔다. 정신분석이론에서 죄책감은 병인론적 정서로 많은 주의를 받았는데, Freud(1961)는 죄책감이 ‘초자아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며, 이 두려움이 처벌소망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 이 후 생애발달에 있어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앞서 출현한다는 Erikson(1959)의 주장으로 인해 수치심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정서이론가들은 정서를 기본정서(basic emotions)와 비기본정서(nonbasic emotions)로 구분하고 있으며(Draghi-Lorenz, 2001). 비기본정서(nonbasic emotions)로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별한다. 죄책감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행동기준을 위반했을 때 개인적인 반성의 결과로서 느끼는 감정인데 비해 수치심은 일반적인 위반행위와 실패에 대한 타인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관찰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로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가정한다(Hogan & Cheek, 1983). 또한 Tangney, Niedenthal, Covert와 Gramzow(1998)은 수치심을 자기(self)에 초점을 맞추는 감정으로 자기 전반에 대해 내리는 부정적 평가이고, 죄책감을 자기보다는 자신이 잘못된

특정행동(specific behavior)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감정으로 보았다.

종교심리학 연구에 있어 수치심과 죄책감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수치심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죄 또는 죄책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도 정확히 구분되어야 할 심리적 정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수치심을 자주 죄책감과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죄책감과 수치심의 개념을 혼동하여 수치심을 죄책감으로 착각하기도 하며, 죄책감을 느끼면서 수치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개념적 혼란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체면위주의 신앙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으며 그 예로 종교적 완벽주의, 부정적인 자기애적 성향, 정서적 억압, 종교중독 등을 들 수 있다. 수치심이 깊을수록 외재적 종교성향에 머무르기가 쉽다. 반면에 죄책감은 내재적 종교성향이 더 강하다. 성숙한 종교성향을 가진 종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치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수치심과 죄책감이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수치심, 죄책감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성숙한 종교성향의 특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에 대한 연구

Allport 등(1967)이 처음으로 제안한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개념에 따르면 외재적 종교성향의 특성은 종교를 자기관심에 대한 합리화나 개인의 욕구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인생에 있어서는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의가 자신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의 특성은 종교를 자기 인생의 궁극적 의미로 삼으며, 종교를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전체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이들은 진실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류라고 하겠다(Hood, 1970). 더 나아가 그는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두 가지 차원 각각에 있어 높고 낮음에 따라 친종교적 성향, 내재적 종교성향, 외재적 종교성향, 비종교적 성향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종교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혜진(1991)은 내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편견이 낮고,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은 편견과 교조주의(dogmatism)에 있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박재연(1993)은 종교성향과 자아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방미숙(1995)은 내재적인 성향과 친종교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지향적인 양식을 취했다고 보고하였다. 박병권(1997)은 종교성향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내재적인 종교성향이 많을수록 삶을 통합하고, 자신과 주변을 적절히 수용하며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누미야 요시유키(1997)는 종교성향 유형에 따라 통제소재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는데, 내재적 종교성향 집단이 외재적 종교성향 집단에 비해 내적 통제경향이 더 강하고, 외재적 종교성향 집단은 내재적 종교성향집단에 비해 외적 통제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및 한성열(2002)은 한국인의 내세관과 사회 및 성격심리학적 변인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종교적 교리를 중요시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은 주로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불분명형, 또는 소멸형 등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보고하였다. 조철수(2004)는 종교성향과 자녀양육 태도를 연구했다. 그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부모들이 외재적 종교성향을 갖는 부모들에 비해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보다 많이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김영인(2004)은 종교성향과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의 상관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 모두에 있어 내재적 종교성향 집단이 높고, 그 다음이 친종교적 성향, 비종교적 성향, 외재적 성향 순서임을 보고하였다.

위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내재적이고 친종교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편견이 적고, 도덕적 수준과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지향적이며 내적 통제경향이 더 강하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많이 갖는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수준이나 행복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

수치심

Freud(1953)는 수치심을 성적충동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노출증, 관음증과 관련시켜 설명했다. 이후 정신분석학자들은 수치심을 환자의 억압을 조장시키는 저항의 한 유형 정도로만 취급하였다. Erikson(1959)은 그의 생애주기이론에서 수치심을 항문기에 생기는 특정한 발달상의 감정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Piers와 Singer(1953)는 수치심이 자아(ego)와 자아이상(ego ideal)사이의 긴장에서 생긴다고 보았고,

Wurmser(1981)는 이드(id)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부분본능인 관음욕구와 노출욕구가 개입된 갈등으로 보았다. 또한 Morrison(1996)은 수치심에 대한 Freud의 견해를 좀 더 발전시켜 수치심을 유아기의 자기애가 실종된 것을 찾기 위한 시도로써 자아이상에서 어긋나거나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보았다.

정서이론에서는 수치심을 부적 정서의 조정자로 표현하면서 수치심을 다른 부적 정서에 비해 보다 심각한 수준의 정서로 보고 있다.

게슈탈트이론에서는 장이론(field theory)을 통해 장(field)에서 소외되는 경험, 관계의 접촉이 끊어져 소외를 느끼는 경험이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Wheeler, 2000). Wheeler(2000)는 수치심의 반대는 소속감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수치심을 다른 정서를 조정하거나 지배하는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사회적 장(field)으로부터 개인을 철회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적 정서로 보고 있다.

자기심리학에서는 공감적 반영의 실패가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본다. 자기심리학에 따르면 수치심은 자기에 관한 과도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수치심은 곧 부모의 공감적 반영의 실패로 인한 심리적인 자기관심의 상실을 의미하며 심한 경우 우울이나 자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기심리학에서는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이론으로 수치심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보는 의무적인 자기와 실제 자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타인이 보는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았다.

수치심은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개인의 심리와 신체 혹은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형태에 따라 '감정으로서의 건강한 수치심'과

‘정체성으로서의 해로운 수치심’으로 분류될 수 있다. 건강한 수치심은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을 말하며, 해로운 수치심은 정체성으로서의 수치심이다. 감정으로서의 건강한 수치심은 수치심을 감정으로 직면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의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으로서의 수치심 경험은 자기의 한계를 알게 하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비해 정체성으로서의 해로운 수치심이란 수치심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변하여 수치의식(shame consciousness)과 수치정서(shame affect)가 지배적인 수치 정체성(shame identity)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수치정체성(shame identity)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수치심을 방어하고 부인하는 역동을 가진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의 역기능적인 면들을 발전시켜 학대적이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면의 한 가지를 택하거나 두 가지를 다 사용하게 된다(Bradshaw, 1988). 또한 해로운 수치심은 내면화(internalization)과정을 거쳐 인간의 성격특성인 자아정체감으로 고정된다. 이렇게 고정된 정체성으로서의 수치심은 자기소외와 고립을 만들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개인을 만들어 내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계선적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를 갖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죄책감

Freud(1953)의 정신분석이론에 따르면 죄책감은 초자아의 발달에 중요한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Piers와 Singer(1953)도 죄책감을 초자아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칙을 어기는 행동위반에서 유발된다고

보았고, 현실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하지만 Barrett(1955)는 Freud에서 더 나아가 죄책감을 초자아의 2가지 기능 중 양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Gilligan(1976)과 Mosher(1965)도 죄책감을 현실적 대인관계적 측면보다는 심리내적 정서로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처벌이나 자기-평가를 죄책감의 주요측면으로 언급하였다. Buss(1957)도 죄책감을 다른 사람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을 인식하는 사적인 자기인식개념과 관련시키면서 자신의 위반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 그것이 죄책감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죄책감을 심리내적 개념으로 보는 전통적인 이론들과는 달리 죄책감의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본 관점이 있다. Rank(1929)는 실질적인 죄책감의 기원은 아동기때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ugler(1992)에 따르면 죄책감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인지기능과 부모를 통해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인 만 4세경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죄책감은 심리내적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적 특성을 가지며, 실제적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경험되는 정서이고, 자신이 행동을 평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게 하는 정서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수치심과는 달리 죄책감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정서이론에서는 죄책감을 개인이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동기를 유발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Izard(1977)는 죄책감의 잠재력은 자아와 사회적 행위가 갖는 문화적 규칙에 관한 책임감과 함께 생기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DeRivera (1984)와 Scheff(1987)는 대인관계 죄책감의 적응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치심과 죄책감의 비교연구

비기분정서에 속하는 유사정서인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어겼을 때 생겨난다고 해서 도덕적 감정이라고 하고(Tangney 등, 1998),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감정이라고 해서 자의식적(self-conscious) 정서라고도 한다.

비록 그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따르면 죄책감은 불편한 경험인데 반해 수치심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Lewis (1971)의 경우 수치심과 죄책감은 모두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지만 부정적 정서의 초점이 다르며, 서로 다른 현상학적 경험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으로 수치심은 어색함, 노출, 자기-마비, 비웃음, 경멸의 경험으로 기술된다. 반면에 죄책감은 어떤 특정 행동이나 행동의 실패에만 그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행동은 다소 자기와 떨어져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느낌을 낳는다.

수치심과 죄책감 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학자인 Tangney(1990)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인 TOSCA(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angney, Wagner & Gramzow, 1989)의 타당화 작업에서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두 정서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지하는 세 가지 결과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치심과 죄

책감간에 상당히 높은 정적상관이 있고, 이것은 둘 다 부정적 정서라는 점에 있다. 둘째,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모두 분리/무관심 지표와는 부정적 상관이 있으며, 두 정서가 자기 또는 자기의 행동과 관련하여 경험되는 것인 만큼 무관심한 태도와는 양립될 수 없다는 유사점도 지니고 있다.

반면 두 감정은 외면화 경향성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수치심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죄책감 경향성을 가진 사람보다 비난을 더 많이 외면화한다고 보고했으며, 수치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Tangney, 1995a).

더 나아가 수치심과 죄책감의 다른 변인들과 관계에 대한 Tangney(1990, 1991)의 추가적인 연구에 따르면 첫째, 수치심 경험은 자아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되는 반면, 죄책감 경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보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TOSCA를 사용했을 때 수치심 경향성은 우울과 여전히 강한 상관이 있으나, 죄책감 경향성은 수치심 경향성을 통제했을 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심 또는 수치심과 ‘융합된(fused)’ 죄책감이 우울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운(free)’ 죄책감은 우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것은 사회적 적응을 돕는 정서양식일 수 있다고 보았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 이루어진 여러 국내연구들 중 정신병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상현(2004)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편집증, 정신증 등 모든 정신장애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

는 반면, 죄책감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치심은 다양한 중독증상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류설영(1999)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일반 청소년 집단은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이 정적 상관을, 죄책감은 심리적 증상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심종은(1999)은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수치심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죄책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정형수(2003)는 수치심의 지각 정도에 따른 대처방식과 우울의 관계 연구를 통해 수치심은 사회적 비하상황에서 자기비난과 타인비난을 통한 인지적 대처 및 우울에 각각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서현령(2002)은 수치심, 죄책감과 자기불일치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수치심은 자기-이상 불일치와 타인-이상 불일치, 타인-의무 불일치와 상관을 가졌지만, 죄책감은 자기불일치의 모든 유형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수치심은 죄책감보다 발달적으로 선행하며, 미분화된 자기경험과 전반적인 인지양식과 관련되고,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행동방식을 동기화시켜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 죄책감은 수치심보다 발달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고, 분화된 자기경험과 관련되며, 구체적인 인지양식과 관련되고, 대인관계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정신병리 증상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렇듯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수치심과 죄책감이

도덕적 감정의 범주에 속하며 종교적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들을 종교성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전혀 없다.

종교란 그 안에서 인간이 삶의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고,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희생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종교적 목표인 사랑을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에서 중요시되는 죄의 개념에 있어 죄책감과 수치심의 개념을 혼동하고 수치심을 죄책감으로 착각하여 종교활동에 있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의 신앙과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자의식적 신앙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다. 수치심으로 인한 이런 종교적 중독은 병리적인 완벽주의 신앙으로 이끌어지고 이런 신앙을 지닌 개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상적인 대인관계, 체면과 눈치현상 등의 문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더 나아가 미성숙하고 병리적인 종교활동으로 인해 종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성향에 따른 수치심 및 죄책감에 있어서의 수준과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회직분 및 교회출석년수를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및 수치심, 죄책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과 수치심 및 죄책감 등 자의식적 정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전 연구에 근거하여 종교성향에 따라 4개 종교성향집단으로 구분하고, 4개 집단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롯한 자의식적 정서변인들에 있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방 법

측정도구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7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

종교성향 측정 도구

종교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심수명(1993)이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한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15번 문항은 집

표 1.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성 별	남	297	42.2
	녀	407	57.8
연 령	20대	240	33.8
	30대	232	32.6
	40대	152	21.4
	50대 이상	87	12.2
교회 출석년수	3년 이하	51	7.2
	10년 이하	103	14.5
	20년 이하	196	27.6
	21년 이상	360	50.7
교회 직분	목사/장로	58	8.2
	권사/집사	211	29.7
	교사	93	13.1
	평신도	266	37.5
	기타	82	11.5
최종학력	고졸이하	192	27.0
	대 졸	362	50.9
	대학원이상	122	17.2
생활수준	중상이상	88	12.4
	중	434	61.0
	중하이하	189	26.6

단 간의 구분에만 필요하며, 나머지 19개 문항 중 8문항은 내재적 종교성향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3, 5, 6, 10, 13, 16, 17, 20)이며, 나머지 11문항은 외재적 종교성향을 측정하는 문항(1, 2, 4, 7, 8, 9, 11, 12, 14, 18, 19)이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사결과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Cronbach's α 는 각각 .73, .73이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 따라 종교성향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기 위해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 각각의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내재적 종교성향점수가 중앙값보다 높고, 외재적 종교성향점수가 중앙값보다 낮은 사람을 내재적 종교성향, 내재적 종교성향점수가 중앙값보다 낮고, 외재적 종교성향점수가 중앙값보다 높은 사람을 외재적 종교성향으로 범주화하였다. 아울러 내재적 종교성향점수와 외재적 종교성향점수가 모두 중앙값보다 높은 경우 친종교적 종교성향으로, 내재적 종교성향점수와 외재적 종교성향점수가 중앙값보다 낮은 경우는 비종교적 종교성향으로 범주화하였다.

자의식적 정서측정도구

죄책감과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Tangney, Wagner와 Gramzow(1989)가 제작한 자의식적 정서질문지(The Test Of Self - Conscious Affect: 이하 TOSC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들(부정적인 것 10개, 긍정적인 것 5개)이 간단하게 제시되고, 각 시나리오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제시되며, 각 반응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시나리오마다 제시된 반응은 수치심, 죄책감, 비난이나 원인의 외면화

(externalization), 분리/무관심(detachment/unconcern), α -pride, β -pride를 나타내는 반응들이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는 수치심, 죄책감, 비난의 외면화와 함께 두 가지 유형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반응들로 이어진다 : α -pride는 자신의 전체적인 성격특징에 대해 느껴지는 자긍심(pride)이고, β -pride는 자신의 특정행동에 대한 평가에서 느껴지는 자긍심(pride)을 나타낸다. Tangney 등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평가의 대상이 '자기 전체' 또는 '특정행동'에 맞추어지는가에 따라 구분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응답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점심시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약속했던 것이 생각났다. 당신은...' 응답자는 다음의 반응들에 대해 가능성을 평정하게 된다. '난 신중하지 못해'(수치심),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만회하려 할 것이다'(죄책감), '점심시간 바로 전에 상사가 나를 정신 없게 했어'(비난의 외면화), '그 친구가 충분히 이해할거야' 라고 생각한다 (분리나 무관심).

본 연구에서 사용된 TOSCA 질문지는 노상현(2005)이 번안한 TOSCA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척도의 검사-재검사신뢰도는 각각 .85, .74이다. 본 연구표본에서 TOSCA 질문지는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analysis)하여 직각회전한 결과 기존의 요인구조를 만족하였으며,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가 각각 수치심 .81, 죄책감 .73, 외면화 .80, 분리/무관심 .71이었고, α -pride는 .59, β -pride는 .41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α -pride와 β -pride는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하였다. 둘째, 기독교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및 수치심, 죄책감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과 자의식적 정서의 6가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Pearson's r)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롯한 4가지 자의식적 정서변인에 있어 종교유형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이 연구의 목적은 종교성향에 따른 수치심

과 죄책감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종교성향, 수치심, 죄책감의 관계성을 살펴본다. 둘째 주요연구변인인 종교성향과 자의식적 정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다. 셋째, 4가지 자의식적 정서 하위변인들이 내재적 종교성향 및 외재적 종교성향 각각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 정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가지 종교성향 집단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 등 자의식적 정서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 연구변인들과의 관계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주요 연구변인인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및 수치심, 죄책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내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연령, 교회출석년수, 교회직분 등의 변인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r = .10$, $r = .18$, $r = .11$, $p < .01$. 이는 연령, 교회출석년수가 증가하고,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연구변인들과의 상관

	성별	연령	출석년수	교회직분	최종학력	생활수준	내재적	외재적	수치심	죄책감
성별	1.00									
연령	.05	1.00								
출석년수	.00	.15	1.00							
교회직분	-.08*	.45	.18**	1.00						
최종학력	-.13**	.04	.19**	.12**	1.00					
생활수준	-.05	-.08*	-.09*	-.10**	-.13**	1.00				
내재적	.00	.10**	.18**	.11**	.05	-.05	1.00			
외재적	.03	.13**	-.15**	.01	-.10**	.01	.09*	1.00		
수치심	.01	.07	-.08*	.06	-.13**	-.02	-.01	.21**	1.00	
죄책감	-.02	.03	-.04	.03	-.02	-.01	.18**	-.05	.46**	1.00

* $p < .05$, ** $p < .01$.

교회직분이 높아짐에 따라 내재적 종교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연령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교회출석년수와 최종학력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r = .13$, $r = -.15$, $r = -.10$, $p < .01$.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재적 종교성향은 증가하나, 학력이 높고, 교회 출석년수가 높아질수록 외재적 종교성향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수치심의 경우 교회 출석년수와 최종학력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교회 출석년수가 증가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수치심을 적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죄책감의 경우 어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과 자의식적 정서 변인들과의 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포함된 수치심, 죄책감, 외면화, 분리/무관심 등 자의식적 정서 하위 요인을 이루는 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과 자의식적 정서

하위요인의 상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죄책감, 분리/무관심 등의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1$, $r = .08$, $p < .01$.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수치심, 외면화 등의 3가지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8$, $r = .18$, $p < .01$.

4가지 종교성향유형에 따른 자의식적 정서의 집단간 차이

4가지 종교성향유형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롯한 6개의 자의식적 정서변인들에 있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수치심의 경우 F검증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 707)=7.96$, $p<.01$. Scheffe 사후검증결과 친종교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종교적 종교성향이나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죄책감의 경우 F검증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 707)=11.75$, $p<.01$.

표 3.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과 자의식적 정서 변인들과 상관

	수치심	죄책감	외면화	분리/무관심	내재적	외재적
수치심	1.00					
죄책감	.46**	1.00				
외면화	.76**	.44**	1.00			
분리/무관심	.60**	.62**	.56**	1.00		
내재적	-.01	.21**	.02	.08*	1.00	
외재적	.18**	-.05	.18**	.05	.09*	1.00

* $p<.05$, ** $p<.01$.

표 4. 종교성향유형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의 집단간 차이

구 분	비종교적 종교성향 (n=128)	외재적 종교성향 (n=193)	내재적 종교성향 (n=221)	친종교적 종교성향 (n=169)	평균	표준편차	F
수치심	2.62a (.62)	2.74ab (.50)	2.59a (.55)	2.85b (.56)	2.70	.56	7.96**
죄책감	3.36a (.49)	3.44a (.49)	3.64b (.46)	3.55ab (.51)	3.52	.50	11.75**
외면화	2.45a (.60)	2.51ab (.53)	2.41a (.51)	2.66b (.61)	2.50	.56	6.53**
분리/무관심	2.94a (.59)	3.00ab (.52)	3.04ab (.48)	3.12b (.48)	3.03	.51	3.24*

* p<.05, ** p<.01,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임.

Scheffe 사후검증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종교적 성향이나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면화의 경우 F검증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 707)=6.53, p<.01$. Scheffe 사후검증결과 친종교적 성향집단이 비종교적 성향집단이나 내재적 종교성향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외면화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분리/무관심의 경우 F검증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 707)=3.24, p<.05$. 사후검증결과 친종교집단이 비종교집단에 비해 분리/무관심경향성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성향에 따

라 수치심과 죄책감을 비롯한 자의식적 정서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우울증, 불안, 성격장애, 정서장애, 신경증, 중독현상 등과 같은 여러 병리적 증상들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수치심은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관계의 어려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편집증 등 모든 정신장애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죄책감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수치심은 다양한 중독 증세의 뿌리가 되며, 수치심을 ‘정신병리 내에 깊이 잠들어 있는 정서’, ‘숨겨진 정서’, ‘정신 병리의 기반암’, ‘심리치료를 도와 줄 금맥’이라고 까지 주장하였다(Wurmser, 1981).

그리고 종교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종교성향 중 외재적 종교성향은 병리적이고 미성숙한 변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건강하고 성숙한 변인들

과 정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llport의 주장대로 외재적 종교성향에 비해 내재적 종교성향이 성숙한 종교성향임을 검증 해주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 가운데 수치심과 죄책감을 종교성향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은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연구대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종교성향 및 수치심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 자의식적 정서와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내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연령, 교회 출석년수, 교회직분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외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연령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교회 출석년수나 최종 학력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Allport의 주장대로 종교 태도가 종교적 성장 기능과 관련하여 성숙의 과정을 거치며 초기의 외재적 종교성향을 극복하여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발달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과 수치심·죄책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내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죄책감을 비롯한 분리/무관심 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수치심을 비롯한 외면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수치심, 외면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죄책감, 분리/무관심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은 죄책감, 수치심을 비롯한 자의식적 정서간의 관계에 있어 정반대 양상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미성숙하고 병리적인 정서인 수치심, 그리고 원인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기능인 외면화와 관련이 있는 반면 내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성숙하고 건강한 정서인 죄책감, 그리고 종교의 초월적 기능과 연관되는 분리/무관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Tangney(1990)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모두 분리/무관심 지표와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두 정서가 자기 또는 자기의 행동과 관련하여 경험되는 것인 만큼 무관심한 태도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모두 분리/무관심 지표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Tangney(1990)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의식적 정서인 수치심과 죄책감이 높을수록 높아진 자기관심으로 인해 자기에 대한 분리/무관심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교인들에게 원죄의식과 ‘내맡김’, 예를 들어 “내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와 같은, 현세지향적 가치가 아닌 초월지향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경우 높은 죄책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높은 분리/무관심이 나타났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가지 종교성향 - 친종교적, 내재적, 외재적, 비종교적 - 집단에 따라 죄책감과 수치심을 비롯한 자의식적 정서에 있어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수치심의 경우 친종교적 집단, 외재적 종교집단, 비종교적 집단, 내재적 종교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의 경우 내재적 종교집단, 친종교적 집단, 외재적 종교집단, 비종교적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외면화의 경우 친종교적 집단, 외재

적 종교집단, 비종교적 집단, 내재적 종교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리/무관심의 경우 친종교적 집단, 내재적 종교집단, 외재적 종교집단, 비종교적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이 모두 높은 친종교적 집단의 경우 내재적 성향으로 인해 죄책감, 분리/무관심이 높게, 그리고 외재적 성향으로 인해 수치심과 외면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결과는 수치심 및 죄책감을 비롯한 자의식적 정서 그리고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내재적 종교성향은 죄책감과 관련이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종교성향인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수치심과 관련이 있는 미성숙하고 병리적인 종교성향이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대학생집단이 아닌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거주지역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질문지 수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20대에서 40대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고,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로 제한되었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시나리오 질문지인데 본 연구자에 의한 조사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수치심 상황과 죄책감 상황에서의 정서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의 상황조사라기 보다는 질문지를 사용한 다소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상황조사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특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측정도구는 자기 보고식 응답지이므로 응답자의 반응에만 의존해야 하는 점과 타인에게 좋게 보이려는 한국인의 심성과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노출하기를 주저하는 한국인의 문화심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응답지 반응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종교성향연구들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종교성향을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성향 외에 다른 개인적 종교특성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종교성향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치심변인에 있어서도 수치심척도를 단일척도가 아닌 건강한 수치심과 해로운 수치심 등의 하위요인을 유형화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울을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의 정신건강이나 정신병리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외재적 종교성향이 수치심과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리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종교성향과 수치심, 죄책감 관련 연구에 반드시 정신건강관련 척도를 연구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타당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들의 종교성향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수치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경에서 수치심이 인간이 갖는 감정 가운데 가

장 먼저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감정이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부분이었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종교의 기능과 역할의 상실로 종교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기존의 수치심, 죄책감 연구와는 달리 수치심과 죄책감을 종교성향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 외재적 종교성향이 강한 종교인들의 경우 우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병리적 병인들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나 기독교적인 목회상담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런 도움을 통해 기독교 및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태도를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범, 임효진 (2005), '사람됨' 준거위반과 도덕적 정서로서의 화(火)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1-21.

김영인 (200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기숙 (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문제, 심리과학 11-1.

노상현 (2004), 열두번째 만남 : 어린영혼과 벽찬 세상, 뉴라이프 I 워크북. 서울: 뉴라이프 카운슬링센터.

노상현 (2005), 열두번째 모임: 상처와 그 후유증, 뉴라이프 I 워크북. 서울: 뉴라이프 카운슬링센터.

류설영 (1999),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병권 (1997), 기독교 노인의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 (1993), 종교성향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현령 (2002), 자기불일치와 수치심, 죄책감의 관계-자기불일치 중요도와 자기기준 선호도의 조절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수명 (199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분화와 죄책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종은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의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진 (1991), 내적-외적 종교성향과 편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누미야 요시유키 (1997), 통제소재와 종교성향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한성열 (2002), 내세관의 사회심리학: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43-144.

이승구 (1992), 종교성향과 타 교파에 대한 배타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형수 (2003), 수치심의 지각정도에 따른 대처방식과 우울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조칠수 (200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자녀양육 태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432-443.
- Barrett, K. C. (1955). A functionalist approach to shame and guilt. In J. P. Tangney & K. W. Fischer(Eds.), *Self-Conscious emotion: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pp. 25-63). New York : Guilford Press.
- Bradshaw, J. (1988). *Healing the Shame That Bind You*. Florida Health Communication Incorporation.
- Buss, A. H.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2), 343-349.
- De Rivera, J. (1984). The structure of emotional relationship.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Emotions, relations, and health*(pp. 116-145). Beverly Hills, CA : Sage.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s, 1(Whole No. 1).
- Freud, S. (1953). *Three essays on theory of sexuality*. In J. Strachey (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7, pp. 135-243).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05).
- Freud, S. (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J. Strachey, Trans.). New York: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30)
- Hogan, R., & Cheek, J. (1983). Self-concepts, self-presentations, and moral judgement. In J. Suls & A. G. Greenwald(Eds.), *Psychology perspectives on self*(Vol. 2, pp. 249-273).
- Hood, R. W. (1970). Religious orientation and the report of religious experie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9, 285-291.
- Hood, R. W. (1972). The conceptualization of religious purity in Allport's typolog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413-419.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 James, W. (1902).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 York: The Modern Librarian.
- Kugler, K., & Jones, W. H. (1992).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318-327.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orrisson, A. P. (1996). *The Culture of Shame*. Northvale, New Jersey: Jason Aronson Inc.
- Mosher, D. L. (1966). The development and multi-trait- multi-method matrix analysis of three measures and three aspects of guil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1), 25-29.
- Piers, G., & Singer, M. B. (1971). *Shame and guilt: A psychoanalytic and cultural study*. New York: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 Sang H. Roh. (2000). *Shame, Guilt, and Cul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heaton College.
- Scheff, T. J. (1987). The shame-rage spiral: A case

- study of an interminable quarrel. In H. B. Lewis (Ed.),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pp. 109-149). Hillsdale, NJ: Erlbaum.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Tangney, J. P. (1990).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02-111.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598-607.
- Tangney, J. P. (1995a).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study of empirical study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8, 1132-1145.
- Tangney, J. P. (1995b).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J. p. Tangney & K. W. Fischer(Eds.),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114-139).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Niedenthal P. M., Covert M. V., & Barlow D. H. (1998). Are Shame and Guilt Related to Distinct Self-Discrep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56-268.
- Wheeler, G. (2000). Self and Shame: A Gestalt Approach. *Gestalt Review*, 4, 221-244.
- Wurmser, L. (1981). *The mask of sham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논문투고일 : 2009. 07. 07
1 차심사일 : 2009. 07. 14
2 차심사일 : 2009. 08. 12
게재확정일 : 2009. 09. 20

The Difference in the Christians' Shame and Guilt-Feeling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Propensity

Uk Song

Seoul Women's University

Yun Joo Kim

Hanyang Cyber University

Sung Yeoul Han

Korea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christians' self-conscious feelings - shame and guilt-feeling etc. -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propensity. For this 711 christians were participated. First, we explored the relationship among demographic variables, religious propensity and self-conscious feelings, and then tested the differences in the self-conscious feelings according to 4 religious propensity - pro-religious, intrinsic-religious, extrinsic-religious and non-religious - groups. The result showed that intrinsic religious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uilt-feeling than extrinsic religious group, but there were no difference in shame. In conclusion, christian's intrinsic-religious, propensity seemed to relate to mature religious attitudes, but christian's extrinsic-religious propensity to immature attitude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religious propensity, shame, guilt-feeling, self-conscious feelings, TOSCA*